

“캠퍼스 브랜드가 학생 복지로 환원 선순환”

GIST ‘지니어스COOP’ 기념품 판매
수익금 1천만원 ‘천원의 아침밥’ 기부
지속 가능한 나눔 캠퍼스 문화 확산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이 수익금 1천만원을 학생들의 아침밥 사업에 첫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GIST는 2일 오전 캠퍼스 내 제2학생회관에서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발전재단 이사진, 학생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

(재)지스트발전재단이 운영 중인 지니어스COOP은 지난 2023년 1월 제1학생회관 건너편에 조성됐다.

스토어명 지니어스COOP은 GIST의 대표 캐릭터인 지니와 어스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캐릭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이 2일 오전 캠퍼스 내 제2학생회관에서 임기철 총장과 김해명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금 1천만원을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첫 기부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터 인형은 물론, 각종 학용품, 티셔츠, 머그컵, 우산 등 다양한 상품과 함께 동문 기업의 화장품,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GIST의 학교 브랜드를 알리고 캠퍼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 참석자들은 학생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판매 수익이 다시 학생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의미에 대해 공감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이 단돈 1천원

으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생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학업 집중도 향상 등의 효과에 학생들이 꾸준히 호응하고 있다.

김해명 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은 “지니어스COOP의 첫 수익금이 학생들의 아침밥으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속 가능한 후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GIST의 캠퍼스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발전재단과 함께 다양한 체감형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스트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지니어스COOP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GIST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국제미용대회 전원 입상 ‘꽤거’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는 “최근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8회 KO.B.E.A 국제미용경진대회’에 참가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매년 치러지는 국제미용경진대회로 헤어커트에서 김지운(1학년·국회의원상), 헤어 블루드라이에서 정아현(1학년·금상), 피부미용 매뉴얼테크닉에서 서다솔(1학년·은상), 판타지메이크업에서 신민주(1학년·동상)

학생 등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1학년으로만 전원 구성 출전에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박장순 미용예술학과 학과장은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뷰티 전 종목에 출전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1학년에게 미용 인재의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영광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호자 간담회’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최근 2025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지도교사 간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 유연성과 신뢰를 형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을 높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2부로 나뉘 1부에서는 ‘상반기 프로그램 활동 보고 및 하반기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보호자들과 함께하는 화분 모종 심기 활동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교사는 “학부모들과 운영 방향을 공유해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청소년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광주기독병원선교회, 완도 소안도서 의료봉사

광주기독병원선교회(회장 김위환)가 최근 이틀간 완도 소안도에서 섬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이후,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를 포함한 직원 21명이 지난달 30~31일 완도 소안중앙교회에서 240여명을 진료하고 736건의 검사 및 영양수액 주사, 54건의 미용봉사로 섬 지역 주민들을 섬겼다.

고령인 주민들이 많아 재활의학과, 초음파·혈액 검사, 영양 수액주사 등 많은 검사를 실시했으며 혈액 검사에서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는 주민에게 검사결과지를 전달해 신속하게 큰 병



원에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발혈치유와 미용, 호두과자 등 8명의 자원봉사자와 CMF(한국누가회) 의과대학 학생 19명도 함께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시, ‘AI 당지기’로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수상

광주시는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공공행정 분야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AI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 ‘AI 당지기’를 도입, 기존의 직원 중심의 당직제를 폐지하고 야간·휴일 민원 대응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당지기’는 당직민원 전화를 실시간으로 응대할 뒤 5개 자치구 및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부서로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황인재 총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의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양한 행정 분야에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도시공사, 저소득층 아동 ‘간식 꾸러미’ 나눔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지역 내 종합복지관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간식 꾸러미에는 서구 삼촌시영3단지 입주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입주주민들은 사전에 진행된 제빵 체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고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눔 활동은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해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고, 아동들에게 기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김승남 사장은 “입주민들이 손수 만든 빵이 아동들에게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장흥경찰,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유공자 표창

장흥경찰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모범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전남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선도·보호에 유공이 있는 일반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남경찰청장 표창은 꾸준한 노력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김초은양이 수상했으며, 감사장은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예절과 인성 함양에 기여한 김미옥 장흥문화원 과장이 받았다.



박흥원 장흥경찰서장은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지적장애인 ‘그룹홈’ 창시·봉사

천노엘 신부 고향 아일랜드서 선종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천노엘(Noel O'Neill·노엘 오닐·사진)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3세.

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천노엘 신부는 전날 오전 12시30분(현지 시간 오전 8시30분) 고향 아일랜드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아일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66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지난 1967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68년 장성성당 보좌신부로 선교활동을 시작한 후 서교동본당, 원동본당, 제주중앙본당, 북동본당, 농성동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봉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형거주시설 ‘그룹홈’을 만들었다.

1985년에는 엠마우스 복지관, 198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를 설립해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자활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신부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헌신한 공로로 1991년 광주시 제1호 명예시민이 됐고 2016년에는 법무부로부터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국내에서 67년간 봉사를 실천해온 천 신부는 지난해 7월11일 퇴임 후 건강 등의 문제로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광주대교구청 대성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으며 이날 오후 2-8시, 3일 오전 10시-오후 6시 추모 미사를 집전한다.

천 신부의 장례 미사는 유해 도착 일정에 맞춰 장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정 기자



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

박물관에 그랜드 피아노 기증

국립나주박물관은 “최근 박물관 중앙홀에서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의 그랜드 피아노 기증식 및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랜드 피아노는 이순욱 후원회 회장(㈜일성기업 대표)을 비롯해 박성자(나주곰탕 하얀집)·이숙례(남일지관)·김미이((유)제일가스) 이 사 등 4인이 공동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기증자와 후원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장 전달과 인사에 이어 청소년 및 성인 연주자가 참여한 기념 연주회가 이어져 감동을 더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상시 피아노 연주 프로그램 ‘누구나 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나 콘서트’는 피아노 연주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무대로, 1회당 30분 이내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연주는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전문 연주자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그랜드 피아노 기증은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민이 소통하고 향유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행사

▲남양 죽화경(竹花景·대표 유영길) ‘제16회 데이지 장미축제’=일(토)까지, 개장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우산길 71(유산리 474), 문의:010-8865-7884.